



은사시나무 / *Populus tomentiglandulosa* T.B.Lee

| 구분   | 설명    |
|------|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   |
| 속국명  | 사시나무속 |
| 과국명  | 버드나무과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과명   | Salicaceae  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버드나무과 낙엽 활엽 교목으로 전국 각지에서 심어 재배한다.<br/>분포지역 : 전국 각지 식재.<br/>형태 : 사시나무(P. davidiana)와 은백양(P. alba) 사이에서 생긴<br/>자연잡종, 인공잡종은 현사시나무라고 함, 낙엽 활엽 교목.<br/>크기 : 높이 20m, 지름 80cm.<br/>꽃색 : 노란색, 녹색<br/>개화기 : 4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둥근 모양이다. 잎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이빨<br/>모양의 톱니가 있다. 겉면은 짙은 초록색이고 털이 없다. 뒷면은 은백양처럼<br/>하얀 솜털이 촘촘하게 있지만 점점 사라진다. 잎자루는 둥근 편이지만 위로<br/>올라갈수록 평평하다.</p> <p>암꽃과 수꽃이 다른 그루에 달리지만 가끔 한 그루에 달리는 경우도 있다.<br/>꽃은 4월에 핀다.</p> <p>열매는 삭과이고 5월에 익는다. 이삭에는 보통 100개 정도의 열매가 달린다.<br/>줄기는 하얀빛이 도는 녹회색이다. 겨울눈은 달걀 모양이고 하얀 털이 있다.<br/>습기가 있고 토양에 질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. 산허리<br/>아래의 기름지고 습기가 적당한 곳이 좋다. 은백양과 마찬가지로 큰 나무<br/>주위에는 새싹이 너무 많이 돋아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밭두렁 등에 심기를<br/>피하는 경향이 있다. 씨앗으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품질이 좋은 어린 나무를<br/>얻기 위해 꺾꽂이를 주로 한다. 1950년 수원사시나무와 은백양 사이에서<br/>생긴 자연잡종으로서 생장이 왕성하다. 잎의 모양이 수원사시나무와 같으나<br/>뒷면이 은백양처럼 백색 솜털로 덮여 있는 것이 다르다. 은사시나무란<br/>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. 목재는 하얀색이고 가볍고<br/>연하며 잘 갈라지고 뒤틀린다.</p> |